

러시아군 철군! 서방의 확전 시도 반대! 한국 정부 개입 반대!

5월 21일 전쟁을 멈춰라!

국제공동행동에 참가하자

5월 21일(토) 오후 3시 서울 대학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하는 '전쟁을 멈춰라! 국제공동행동' 집회가 열린다. 집회 뒤에는 종각역 근처 르메이에르 종로타운까지 행진한다.

이 집회는 국제 행동의 일부다. 5월 7일부터 6월 25일까지 여러 나라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하는 국제 행동들이 계획돼 있다.

국제 행동을 제안한 국제적 반전 연대체 '우크라이나에 평화'는 이렇게 주장했다. "우리는 러시아 군대의 철수, 나토 회원국들의 군사적 확전 중단, 핵 확전의 위험을 안고 있는 참혹한 전쟁을 협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5월 21일 "러시아군 철군, 나토 확전 시도 반대, 한국 정부 개입 반대"를 요구하는 한국의 집회 또한 국제적 반전 목소리에 힘을 보탬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청년·학생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목소리를 내는 데 함께하길 바란다.

재앙적인 전쟁으로 수만 명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굶주림, 인플레이션, 사회적·정치적 불안정, 군국주의 강화 등이 초래되고 있다.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은 많은 사람들이 몸서리치게 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러시아의 폭격으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폐허가 됐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서 즉각 철군해야 한다.

서방의 대응은 전쟁을 중단시키려는 커녕 키워 왔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에 50억 달러(약 6조 3140억 원) 넘는 무기를 지원했다. 하지만 이런 지원은 푸틴의 확전 행위를 부추겼을 뿐이다. 푸틴은 서방의 러시아 압박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복하겠다"고 으르렁거렸고, 세계 최초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사용하는 등 막대한 포격을 퍼부어 우크라이나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경제 제재도 전쟁 행위의 일부일 뿐 사태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 서방의 경제 제재에 대응해 러시아는 핵 전력에 전투 준비태세를 갖추게 했다. 그리고 제재가 낳는 러시아 사회의 어려움은 푸틴으로 하여금 러시아의 반전 운동을 탄압하기 용이하게 만들었고, 제재로 인한 물가 폭등과 사회적 위기의 대가는 러시아(와 다른 가난한 나라들)의 평범한 사람들이 고통으로 치렀다.

요컨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는 참상이 다시 서방의 확전 행위의 명분이 되고, 서방의 확전 행위가 다시 러시아의 강경 대응을 낳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악순환을 뺏히 알면서도 확전 행위를 계속하는 미국과 서방의 관심사는 러시아를 저지해 동유럽에서 나아가 인도-태평양에서 자신들의 패권과 지배력을 지키려는 것이지 우크라이나 보통 사람들의 평화와 안녕이 아니다. 러시아의 참상을 명분삼아 확전을 꾀하는 미국 등 서방 지도자들에게도 맞서야 한다.

한국 정부도 사태를 악화시키는 데 일조해 왔다. 최근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비전투 군수물자"라고 하지만 전쟁터에 보내는 군수물자가 비전투용이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동안에도 한국 정부는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우크라이나에 군수물자를 지원해 왔다. 오는 5월 21일 바이든은 방한해 한국에 전쟁 지원을 더 늘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려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서의 충돌을 놓고 미국을 지원하는 것은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 정세도 긴장케 할 일이다. 여기서 평범한 한국인들이 얻을 이득은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옛 식민지에 대한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침공일 뿐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자기 동맹국들을 데리고 벌이는 제국주의 간 충돌이기도 하다. 이 전쟁은 제2차세계대전 이래 처음으로 강대국들이 직접 충돌할 개연성을 상당히 높였다. 이것은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이 될 핵전쟁의 위험성도 높이고 있다.

따라서 평화를 염원한다면, 서방과 러시아 강대국들의 전쟁물이에 모두 반대하고, 서방 편을 드는 한국 정부에도 반대해야 한다. 5월 21일 이를 요구하는 국제 반전 행동에 함께 동참하자!

2022년 5월 9일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

stu.workerssolidarity.org



함께 읽어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쟁점들
stu.workerssolidarity.org/a/9892



러시아군 철군! 서방의 확전 시

5월 21일 전쟁

국제공동행동

5월 21일(토) 오후 3시 서울 대학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하는 ‘전쟁을 멈춰라! 국제공동행동’ 집회가 열린다. 집회 뒤에는 종각역 근처 르메이에르 종로타운까지 행진한다.

이 집회는 국제 행동의 일부다. 5월 7일부터 6월 25일까지 여러 나라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하는 국제 행동들이 계획돼 있다.

국제 행동을 제안한 국제적 반전 연대체 ‘우크라이나에 평화를’은 이렇게 주장했다. “우리는 러시아 군대의 철수, 나토 회원국들의 군사적 확전 중단, 핵 확전의 위험을 안고 있는 참혹한 전쟁을 협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5월 21일 “러시아군 철군, 나토 확전 시도 반대, 한국 정부 개입 반대”를 요구하는 한국의 집회 또한 국제적 반전 목소리에 힘을 보탬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청년·학생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목소리를 내는 데 함께하길 바란다.

재앙적인 전쟁으로 수만 명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에서

도 반대! 한국 정부 개입 반대!

전쟁을 멈춰라!

전쟁에 참가하지

한국 정부도 사태를 악화시키는 데 일조해 왔다. 최근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비전투 군수물자”라고 하지만 전쟁터에 보내는 군수물자가 비전투용이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동안에도 한국 정부는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우크라이나에 군수물자를 지원해 왔다. 오는 5월 21일 바이든은 방한해 한국에 전쟁 지원을 더 늘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려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서의 충돌을 놓고 미국을 지원하는 것은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 정세도 긴장케 할 일이다. 여기서 평범한 한국인들이 얻을 이득은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옛 식민지에 대한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침공일 뿐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자기 동맹국들을 데리고 벌이는 제국주의 간 충돌이기도 하다. 이 전쟁은 제2차세계대전 이래 처음으로 강대국들이 직접 충돌할 개연성을 상당히 높였다. 이것은 인류에

쫓겨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굶주림, 인플레이션, 사회적·정치적 불안정, 군국주의 강화 등이 초래되고 있다.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은 많은 사람들이 몸서리치게 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러시아의 폭격으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폐허가 됐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서 즉각 철군해야 한다.

서방의 대응은 전쟁을 중단시키려는 커녕 키워 왔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에 50억 달러(약 6조 3140억 원) 넘는 무기를 지원했다. 하지만 이런 지원은 푸틴의 확전 행위를 부추겼을 뿐이다. 푸틴은 서방의 러시아 압박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복하겠다"고 으르쳤고, 세계 최초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사용하는 등 막대한 포격을 퍼부어 우크라이나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경제 제재도 전쟁 행위의 일부일 뿐 사태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 서방의 경제 제재에 대응해 러시아는 핵 전력에 전투 준비태세를 갖추게 했다. 그리고 제재가 낳는 러시아 사회의 어려움은 푸틴으로 하여금 러시아의 반전 운동을 탄압하기 용이하게 만들었고, 제재로 인한 물가 폭등과 사회적 위기의 대가는 러시아(와 다른 가난한 나라들)의 평범한 사람들이 고통으로 치렀다.

요컨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는 참상이 다시 서방의 확전 행위의 명분이 되고, 서방의 확전 행위가 다시 러시아의 강경 대응을 낳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악순환을 뻔히 알면서도 확전 행위를 계속하는 미국과 서방의 관심사는 러시아를 저지해 동유럽에서 나아가 인도-태평양에서 자신들의 패권과 지배력을 지키려는 것이지 우크라이나 보통 사람들의 평화와 안녕이 아니다. 러시아의 참상을 명분삼아 확전을 꾀하는 미국 등 서방 지도자들에게도 맞서야 한다.

세 엄청난 재앙이 될 핵전쟁의 위험성도 높이고 있다.

따라서 평화를 염원한다면, 서방과 러시아 강대국들의 전쟁몰이에 모두 반대하고, 서방 편을 드는 한국 정부에도 반대해야 한다. 5월 21일 이를 요구하는 국제 반전 행동에 함께 동참하자!

2022년 5월 9일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

stu.workerssolidarity.org



러시아군 철군
서방의 확산 시도 반대
한국 정부 개입 반대

전쟁을 멈춰라
국제공동행동

일시 5월 21일(토) 오후 3시
장소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
(집회 후 행진)

Russian Troops out!
No to NATO escalation!
No to Korean Government intervention!

Stop the War!
Global Action
against the war

21st May 3pm
Marronnier Park, Daehak-ro
(march after rally)

주최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 연명 제안 중 (<https://bit.ly/0521-StopTheWar>) 문의 010-7550-2131 (English 010-2196-1917)

함께 읽어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쟁점들

stu.workerssolidarity.org/a/9892

